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다함께
*찬양과 경배 Songs of Praise		다함께
기도 Prayer		서경열
*주님의기도 Lord's Prayer		다함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눅2:36-40	다함께
말씀선포 Sermon	성전을 떠나지 않고	유형선
*찬양 Praise		다함께
*봉헌&축도 Offering&Benediction		유형선

\*가 있는 순서에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들어오면서 현금함에 넣어주세요.

**주일대표기도**

1월 14일	1월 21일
최은숙	윤한진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후 2시 (본당)
청소년 주일예배	오후 1시 30분 (친교실)
수요성경공부	저녁 7시 30분 (친교실)
아침묵상	(화,수,금) 매일 오전 6시 (Youtube)

**공동기도제목**

1. 말씀 안에서 - 부활 신앙으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2. 나라와 민족 - 민족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3. 교회와 선교 - 교회가 십자가 앞에 무릎꿇고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하소서

누가복음강해 (9) 비방 받는 표징

본문 : 눅2:25-35

성경은 복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복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복과, 또 하나는 육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육적인 복을 구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목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복은 유한하며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도 영원한 나라의 복의 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먹고 배가 부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복을 간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의 영광에 욕심을 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의 양식을 구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이 땅에 온 이유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왜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습니까? 바로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실천하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겁니다. 죽기 싫은 겁니다. 그냥 적당히 타협하며 복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겁니다.

본문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자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내용중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빛과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서 빛과 영광이 되라는 성공지향적인 찬양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비방 받는 표징이라고 설명합니다. 비방이라는 단어는 반대로, 역설, 모순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세상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칼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낄 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그녀는 아들이 고통 당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비방 받는 표징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성전에서 그분과 함께 머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동행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의 육신의 복을 구하지 않고 영적인 복을 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2024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영적인 복의 눈을 떠서 그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삼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